

綠地化 反對請願, 서울시 衿川區 始興3洞 全地域의 風致地區解除를 爲한 請願, 以上 6건을 市議會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以上 6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조속 개설요망청원 의견서

○ 박종명 외 1,303명이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조속 개설요망의 청원은 구로구 오류2동(순환도로~항동 시계간)의 노폭 50m(연장 3,750m)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으로 도로계획을 축소조정(50m→20m)하여 사유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손실 보상을 해주거나 또는 변경없이도 조속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 이 지역은 '71년 4월 7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어 약 25년간 사유재산의 제한을 받아와 많은 민원과 불만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로 도시계획도로 자체를 축소하여서라도 조속히 손실보상을 해 줄 것을 요망하는 것으로 이는 현재 증가되는 교통량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면이 있으나

○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확보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본 청원이 다수 민원인의 욕구에 상응할 수 있도록 수용하여 주도록 촉구코자 하는 것임.

양재대로변 포이동 163-8부터 164-28번지 구간 시설녹지(길이500m, 폭10m)철거에 관한 청원 의견서

○ 청원인들은 현재 양재대교 포이동 163-8부터 164-28번지 구간 500m, 폭 10m의 시설녹지지정으로 소요되는 예산낭비의 절감과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해 조속히 시설녹지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 과거 개포지구 택지개발 사업시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의 공해와 각종 사고 및 자연재해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재대로변 폭 10m로 시설녹지를 조성하였으며, 양재대로는 양재 I.C의 경부고속도로 교통량을 서울시와 과천 등으로 분산하는 간선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긴 하나

○ 이 지대는 이미 5층이상 고층건물이 건립되어 방음, 방풍효과가 있고 구룡산 산림의 공기정화 작용과 뛰어난 경관 및 풍치가 있으며, 인근 주민의 경제활동의 불편 및 막대한 시설투자로서 건축된 고층영업용 건물의 운영부실 등을 감안하여 본 양재대로변의 시설녹지의 해제는 긍정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함.

강남구 양재대로변 포이동 176-29번지 도로 (길이10m, 폭6m)개방촉구청원 의견서

○ 본 청원은 양재대로변 포이동 176-29번지 일대의 도로가 시설녹지 결정으로 인하여 양재대로에서 진·출입이 불가능한 점 등을 들어 폐쇄도로를 해제하여 개방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 강남구 양재대로변 포이동 176-29번지 도로는 개포지구 택지개발 사업시 유발될 각종 공해와 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것으로 '95년 2월 13일 강남구 도시기본계획에 본 시설녹지가 해제 요구된 바 있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당초 지정목적 및 기능상 수용불가로 부결되었고, 또한 '96년 7월 4일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교통소통에 장애요인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부결처리된 바 있으나,

○ 이 지역에는 이미 5층이상 고층빌딩이 건립되어 있어 방음, 방풍역할을 대신하고 있고, 이 일대 약 700m거리에는 현재 횡단보도가 설정된 곳이 없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우기시 경사지대로 인한 토사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출입도로를 적절히 개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지역여건상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이 통행에

<p>불편이 없도록 소로(오솔길)는 꼭 개방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코자 함.</p> <p>.....</p> <p> 풍치지구해제에 관한 청원 의견서</p> <p>○ 김명기 외 1,417명이 구로구 수궁동, 오류동, 은수동, 궁동 일대 지역은 인근의 부천시, 오류1동 지역들과 비교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아 건축물을 증·개축하려 해도 사유재산활용에 제한이 있으므로 조속히 풍치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사안으로</p> <p>○ 동 지역은 '71년 7월 30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447호로 300,00㎡가 풍치지구로 최초 지정된 후 '72년 8월 25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385호로 1,900,000㎡가 추가 지정되었는데 '90년 11월 26일 서울시 고시 제390호로 220,028㎡가 최소 대지면적 미달인 소규모 주택 밀집지역이라는 사유로 풍치지구 해제후 고도지구(5층이하)로 대체 지정되었는데,</p> <p>○ 지역 여건상 경기도와 인접해 있고 소규모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으로 거주주민의 영세성, 기 해제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의 풍치지구 재정비시 동 지역에 대한 풍치지구 해제를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함.</p>	<p>따라, 토착민의 기득권 보호, 6호선 개통에 따른 개발의 기대, 고층화된 쌍용타운과의 형평성, 자력개발시에도 남산 경관 보호 및 조망권 확보에 지장이 없다는 사유의 다수민원 등을 감안하여</p> <p>○ 녹지화 계획을 취소하고 상업지역화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남산 및 한강변의 경관측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진행중인 용산지역 상세계획 수립시 컴퓨터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통해 남산의 경관 조망측을 차단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자력개발을 유도하는 등 본 청원이 수용되도록 촉구함.</p>
<p>.....</p> <p> 전쟁기념관옆 상업 및 주거지역 녹지화 반대청원 의견서</p> <p>○ 본 청원은 서울시 용산지역정비기본계획에 삼각지를 6호선 개통시에 현 4호선과의 환승역으로 개발함에 주변도로를 양측으로 4차선 확장하면서 9통 일대의 나머지 상가지역과 주민 주거지역을 녹지화할 것을 상세계획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녹지화 반대 및 상업지역을 변경하여 역세권 개발로 유도해 주거나 부득이할 때는 남산경관측에서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 자력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으로</p> <p>○ 한강로에서의 전쟁기념관과 용산공원의 조망권 확보, 남산경관 보호 및 고밀개발 억제 등을 위해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p>	<p>.....</p> <p> 서울시 금천구 시흥3동 전지역의 풍치지구 해제를 위한 청원 의견서</p> <p>○ 본 청원은 1971년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1990년도에 극히 일부 지역만이 해제된 이후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전반적인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빠르게 변화하는 주변여건에도 맞지 않아 시흥3동 일대의 전지역의 풍치지구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p> <p>○ 동 지역은 '71.7.30. 건설교통부고시 제447호로 500,000㎡가 풍치지구로 지정된 후 '72.8.25. 건설교통부고시 제385호로 900,000㎡가 추가로 지정되어 '90.11.26. 서울시고시 제390호로 69,920㎡가 최소대지 면적 미달인 소규모 주택밀집지역이라는 사유로 해제된 바 있는데</p> <p>○ 제3대 의회시 동 건에 대해 청원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집행부측에서는 장기 검토과제로 연구해 오다가 풍치지구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으로 주변환경의 영세성, 해제지역과의 형평성, 인접지역과의 균형성을 고려하여 본 청원이 수용될 수 있도록 촉구함.</p> <p>31. 都市計劃案에對한議會意見聽取(10件)(서울特別市長 提出)</p> <p>(16時 51分)</p> <p>○議長 文一權 다음은 議事日程 第31項 都市計劃案에 對한 議會 意見聽取 10件을 상정합니다.</p>